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2021
06
516

http://afz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이내갈길 저기하늘 날이새면 나르리라
10	특별기고	국방우주의 오해와 진실 (ASTI 이동규 교수)
14	특별 인터뷰	공군을 심플하게 표현하다! (공군 예비역 병장 김현준)
18	ROKAF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를 소개합니다
22	특별 기고	26개월간 총검술만 하다 나왔더니 (JTBC 김민관 기자)
24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6화 박남수(朴南秀) 시인 편
30	내 옆의 공군인	이화여자대학교 조무형 교수
34	우리 부대는	항공우주전투발전단
40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호국보훈의 달 기념 F-51D 출격 장면
디 자 인 상병 황현동(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표 지(뒤) 영원한 빛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공군인(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1년 6월 1일(통권 제516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105019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46 한 달, 한 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48 명상을 말하다 감사하는 마음

50 영화로운 나날 지키는 것의 숭고함

52 공군인의 편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38전투비행전대 감찰안전실 일병 유성민)

54 생각하는 그림 스페이스 프론티어

글·사진 | 월간공군 편집실

이내갈길 저기하늘 날이새면 나르리라

6월은 6·25전쟁, 제2연평해전, 현충일 등으로 기억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다. 월간공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군박물관을 찾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별한 유물 2점에 대해 취재했다. 이번 코너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6·25전쟁 항공전사, 그중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들이 전투조종사로 첫 출격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들의 첫 출격을 기념하여 제2기생들이 선물한 태극기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창부 박물관장 : 공군 박물관장 강창부 교수입니다. 1999년부터 현역교수로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역사와 전쟁에 대해 가르치다 올해 3월 말에 전역하고, 4월부터는 역사학 교수와 공군박물관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공군사(史)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AF 공군박물관에 특별한 태극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주십시오.

강창부 : 맞습니다. 공군 역사에 있어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태극기가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의 첫 출격을 기념하여 제2기 졸업생들이 선물한 태극기인데요. 가로 90cm, 세로 60cm 태극기에 후배 3~4명이 저마다 전하고 싶은 말을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롤링 페이퍼처럼 말이죠. 제1기 졸업생의 첫 출격은 1952년 12월, 6·25전쟁이 한창일 때 있었습니다.
전장으로 바로 나가는 신임 조종사들의 무운을 빌기 위해 장행회(壯行會)라는 명칭의 출격 환송행사를 열었는데, 그 행사 자리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의 어깨에 메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태극기가 장행회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 중 유일한 실물입니다. 당시 장행회의 주인공으로서 태극기를 소장해왔던 제1기 사관께서 박물관에 기증하셨죠.

공군박물관장 강창부 교수

박물관에 전시된 태극기를 설명하고 있는 강창부 박물관장

AF 태극기에는 쓰인 문구가 궁금합니다.

강창부 : 조국통일(祖國統一), 임전무퇴(臨戰無退), 신념(信念), 쾌남아(快男兒), 축 초출격 선배 천영성 중위(祝 初出擊 先輩 千永星 中尉)라는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2기생 김용수 생도가 '임전무퇴'를, 김동호 생도가 '신념', 박재성 생도가 '쾌남아'를 작성했다고 쓰여있고, '조국통일'과 첫출격을 축하한다는 글귀는 작성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글귀들의 가장 앞이자 중심적인 위치에는 '조국통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염원과 결의를 중심으로 해서 후배들의 격려의 마음이 글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글귀를 작성한 모든 이들은 선배 조종사이자 후배 장교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임관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훈련을 받고, 전투조종사가 되어 조국 수호의 최선봉에 올랐으니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태극기를 잘 보면 먹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접었던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비행훈련을 받고 있던 후배들이 선배를 위한 선물을 급히 준비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AF 태극기가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창부 : 장행회의 태극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비로소 공군사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첫 조종사를

먹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접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태극기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F-51 훈련 수료 기념 사진

실전에 투입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설립 1년 만에 6·25전쟁이 발발하며 김포에서 진해까지 옮겨 다녀야 했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졸업생들이 비행교육을 거쳐 전쟁에서 출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죠.

또한, 전쟁 발발 직전부터 사관학교의 교장으로서 전쟁 중 교육훈련의 전 과정을 지휘했던 최용덕 장군의 입장에서도 매우 감회가 남달랐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최용덕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해 항공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장군님은 일찌감치 항공력을 통한 광복과 조국 수호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는데, 그 중 인재 양성 분야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행회가 거행되기 며칠 전에 공군 총참모장(현재의 참모총장)으로 영전하신 최용덕 장군님이 이날 행사에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임석상관으로서 행사를 주관하신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AF 공사 1기생의 첫 출격이 임관하고 1년도 더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강창부 : 공사 1기생은 1951년 7월에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52년 12월에 졸업생 중 일부가 전투조종사로 출격하죠. 1기생들은 그 사이 기간에 비행교육을 받습니다. 6·25전쟁 당시 비행교육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행교육은 주로 L-4와 L-5 항공기로 진행됐죠. 그러나 그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전쟁 중 항공작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비행교육도 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항공기만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행교관도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비행 교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조종사가 비행교관직을 겸임해야 했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행교육이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속성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죠.

L Type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조종사에게는 T Type 항공기를 통한 훈련이 진행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이들만 F-51을 활용한 실전적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와 조종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에서 실전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에 있던 우리 공군에게 첫 조종사 배출은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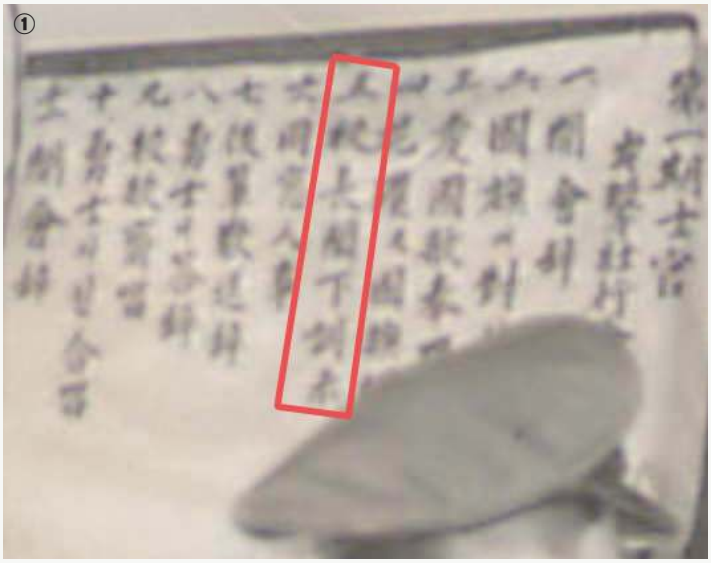
장행회의 주인공인 제1기생들은 모두 G클래스 A차반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조종사들에게는 별도의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베테랑 A클래스부터 신임조종사 G클래스까지 있었죠.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몇 개의 차반으로 나누어 교육했죠.

장행회 행사 사진

AF 행사 사진과 식순에 최용덕 장군과 관련된 미스테리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강창부 : 먼저, 장행회 행사일을 보면 1952년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최용덕 장군은 1952년 12월 1일 공군사관학교 교장에서 공군 총참모장(현 참모총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최용덕 장군의 뒤를 이어 총참모장이던 김정렬 장군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직을 맡게 됐죠. 그렇다면, 5일에 개최된 장행회 행사에는 김정렬 장군이 앉아계셔야 하죠? 장행회 사진을 자세히 보면 최용덕 장군이 행사 임석상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또한, 식순에도 '교장각하 훈시'라고 쓰여있죠.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난 2년간 공군사관학교를 이끌며 제1기 생도를 전투조종사로 배출하는 데 중심인물이었던 최용덕 장군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순에 교장이라는 표현도, 임석상관으로 앉은 것도 불과 며칠 전까지 교장이었으며, '교장'으로서 제1기 졸업생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인사명령상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할 김정렬 장군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 UN 군사령부 연락장교 파견 준비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① 장행회 행사 식순 사진. 5번째 식순에 '교장각하 훈시'라는 문구가 있음.

② 장행회 행사를 주관하신 최용덕 장군

③ 장행회 행사 종료 후 촬영한 기념사진. 2번째 줄 중앙에 최용덕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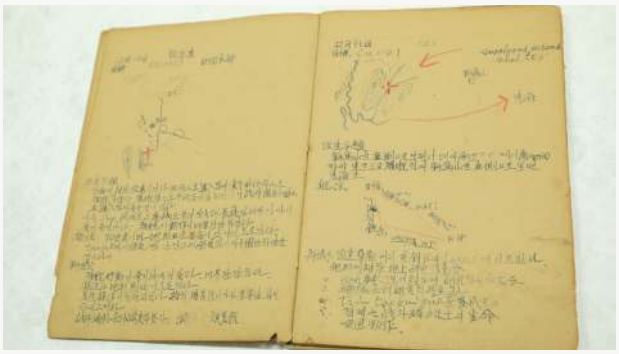
AF 장행회 이후에 공군사관학교 1기 출신 전투조종사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강창부 : 장행회 주인공인 A차반 전투조종사들은 행사 직후에 전선에 투입됩니다. 1952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차례로 작전에 참가했는데요. 선배 조종사들과 함께 항공지원작전을 펼쳤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의 351고지에 대한 항공근접지원 작전이 1기생들이 초기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형태의 항공차단작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1기 출신 전투조종사 중에는 휴전 협정 전까지 100회에 가까운 출격횟수를 기록한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군박물관에 1기 전투조종사들의 출격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 출신 이배선 예비역 대령의 6·25전쟁 출격일지인데요. 작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답니다. 전쟁 중에 1기생 중에서는 다섯 분이 전사 또는 순직하셨는데, 차진준, 임택순, 장창갑, 김현일, 고광수 대위가 그분들입니다.

AF 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강창부 : 이 대령님은 1952년 12월 첫 출격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수행한 총 92회 출격에 대한 내용을 2권의 노트에 기록하셨습니다. 한글, 영어, 한자가 빼곡히 섞여 정리된 일지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한 임무 요도와 함께 비행 목표와 작전 성과를 기록해두셨습니다. 또, 당일 비행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빠짐없이 적었는데 특히 아쉬웠던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적으며 더 나은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죠.
출격일지에는 故 임택순 대위의 사고 상황도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친한 동기생이자, 믿음직한 동료였던 그를 잃은 비통함이 일지에 담겨있죠.
출격일지 첫 장에는 '전투는 교육이다', '출격은 산 실체의 교육이고 실습이다', '많이 공부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출격일지가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조종사들의 필독도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F

출격일지에 대해 설명하는 강창부 박물관장



전투조종사 출격일지

국방우주의 오해와 진실

글쓴이
ASTI 이동규 교수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이동규 미래항공우주기술센터장/교수

최근 국내에서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승리호〉가 제작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덧 우리에게도 우주가 제법 친숙해진 듯하다. 대중들이 느끼는 우주도 가까워졌는데, 우리 군은 어떨까? 우주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많이 부족하다. 따지고 보면 1990년 걸프전 때부터 각종 위성이 등장하면서 우주작전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니 새삼 지금에 와서 국방우주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당위성을 피력한다는 것 자체가 진부한 잔소리일 수 있겠다.
최근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하고 있으며, 우주위협에 대한 대응방안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른 우주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국방부가 우주전 대비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있다는 데 그동안 30여 년을 군 우주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못다 이룬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전한다. 이에 필자는 국방부의 우주조직 검토와 독자들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방우주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일문일답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군도 우주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가?

당연하다. 어느덧 전쟁터는 지상/해상/공중영역에 이어 사이버뿐만 아니라 우주영역까지 확장된 지 30여 년이 넘은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의 구조가 모든 전쟁영역에 부합되어 있지 않다. 우주 전장을 담당할 조직이 없다.
외국군의 경우를 보면 국방우주력 건설의 시급성이 한층 확연해진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은 공군을 주무군으로 우주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중국, 영국, 인도는 합동부대를 만들어 우주작전을 이끌어 가는 모양새다. 형태야 어떻든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어느새 우주 강군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군조직법에는 '육·해·공군은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주영역도 지·해·공중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가시적·물리적 공간이다. 따라서 우주전장에 대해서도 작전 권한을 부여받아 국방의무의 책임을 다할 주무군이 합법적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군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레이더를 활용해 우주물체를 관찰하는 모습

둘째,
우주력 건설과 우주작전 수행은 다른 것인가?

다르다. 쉽게 생각해 능력과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우리 군은 부대·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오래전부터 우주력을 건설해오고 있다. 국군통신사령부는 군 통신위성 분야를, 정보사령부는 군 정찰위성 분야를, 그리고 공군은 우주감시 분야를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우주작전을 수행할 주무군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화된 우주위협으로부터 우주작전 수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마치 지상작전을 하면서 주무군인 육군이 없는 상태로 공군과 해군이 갖추고 있는 지상병력으로 지상전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방부에서 작성 중인 '국방비전 2050' 내용에는 우주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전략사령부 창설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먼저 조직구도를 생각해 놓고 거기에 각종 전력과 작전을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군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때, 우선 해당 작전의 특성과 형태 등을 먼저 따져본다. 이후 작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전력과 조직,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체계까지를 순차적으로 갖추어 가야 한다. 그래야 조직, 장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조직의 수시 정비도 용이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도 전략사령부라는 조직에 우주작전 임무를 최초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각 군에서 오랫동안 우주작전 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에 단행된 조직 재정비의 결과였다. 지금은 다시 우주군으로 우주작전 임무가 넘어갔듯이 조직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요전력과 작전을 다뤄서는 안 된다.

셋째,
우주작전은 각 군의 작전지원이 주요 임무인가?

아니다. 우주는 그 공간만큼이나 작전범주도 방대하다. 각 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현을 위해 미군의 우주작전 개념과 체계를 준용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주전장 상황 감시, 우주 정보 지원, 대우주 공격/방어, 전력수송 분야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전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우리 군도 우주감시 분야와 각 군의 작전지원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우주감시정찰 전력 확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우주작전의 모든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마치 우주작전이 각 군 작전을 지원해주는 역할일 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우주작전 규모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하니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우주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전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주영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어차피 가야 한다면 서둘러 선점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 것이고, 우주 영역에서 억제력을 갖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우리 군의 국방우주 조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군도 궁극적으로는 우주군 독립병종 체제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새롭게 식별된 전장에 대해 주무군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방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치 해상전장에 대해 해군에게 해상작전에 대한 주무를 지정했듯이, 그리고 사이버 전장이 식별되면서 사이버사령부라는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임무를 법으로 보장했듯이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 우주군 간에 연합우주작전과 제반 업무협력이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난제가 적지 않다. 군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새로운 군을 창설하려면 현재의 군 구조와 인력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예산과 함께 재정비 기간 동안의 군 안보태세의 흔들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는 일이니 아무래도 과도기적 차선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단계적인 우주조직 발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군 조직에서 누군가가 우주작전 임무를 당분간 대행하는 체제로 가다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그때 우주군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다. 대체로 우주선진국에서 선호해왔던 수순이다. 아직 우리 군의 우주분야는 성숙단계가 아닌 초기단계라고 여겨진다. 어느 군이 대행하면 좋을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된다. 현재 임무와의 유사성, 역할 적용 시 효과성, 그동안의 경험·경력, 동맹과의 연합작전 효율성 비교, 그리고 타국 선진국 사례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물론 각 군 모두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중한 국방비를 가지고 모든 군이 임무를 중복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주조직을 합동부대화하는 옵션은 각 군 능력 비교가 선행된 후에도 결정이 여의치 않을 때 고려해 볼 만한 최후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 군 나름대로 우주를 향해 노력해온 열정과 투자한 시간들이 평가 절하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언론에서 국방우주를 두고 육·해·공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싸울 일이 아니다. 미래 국방우주의 특성과 우주작전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져보면 쉽게 해답이 나올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자군이기주의 때문에 객관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주작전은 미래 이야기에서 일상이 된 지 오랜데 우리는 아직도 누가 책임지고 가야 할지 주인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인이 존재해야 잘 지킬 수 있고 타군과 합동성 강화도 가능한 법이다. 전쟁에 2등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들이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군은 철저히 준비해 주어야 한다. 우주전장에 대한 주무군 지정을 늦은 만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F

2021 사고예방 창작공모전

공군 군사경찰단

2021 창작 공모전

기한/대상

기한: '21. 8. 27.(금) 까지

대상: 전군 장병 및 군무원 / 일반인

제출방법

군내: 범죄예방담당 인트라넷 메일 orangemasidda@af.mil

민간: 범죄예방담당 인터넷 메일 afmp21@naver.com

주제/부문

주제: 범죄사고 예방

(대민/영내폭행,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부문: 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로고송, 표어

(일반인은 포스터, 로고송, 표어만 응모가능)

시상내역

최우수: 참모총장상 + 상금

우 수: 참모총장상 + 상금

장 려: 인참부장상 + 상금

입 선: 군사경찰단장상 + 기념품

결과발표

2021년 11월 2주 (예정) * 개별 통보

문의

공군 군사경찰단 범죄예방과 [042-552-1839]

부문별 양식	크기/용량	파일형식	재생시간	비고
동영상	200MB 이하	WMV	3분 이내	-
카드뉴스	10MB 이하	JPG	9-12컷 컷별 간격 3mm	93 x 93 mm | 1098 x 1098 px
포스터	A3	JPG	-	297 x 420 mm | 해상도 300DPI
로고송	10MB 이하	MP3	1분 이내	음원, 가사 별도 제출
표어	배부 양식 준수	HWP	-	작품신청서 작품명에 기입

*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 (rokaf.airforce.mil.kr) 내 공지사항 참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글·사진 | 월간공군 편집실

공군을 심플하게 표현하다!

공군 병장이 일냈다. 공군의 사물을 심플하게 표현한 대한민국 공군 픽토그램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당당히 본상을 수상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신인 감독이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과 같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 픽토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 김현준 예비역 병장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현준_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까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그래픽디자인병으로 근무한 김현준 예비역 병장입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할 당시에 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군 입대에 대한 고민으로 막막하던 때에 전문특기병인 공군의 '콘텐츠제작병'을 알게 되었고,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보며 이곳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마음껏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 저의 전임자였던 서희강 예비역이 2019년에 공군 의복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을 보고 자극받아, '나도 꼭 군대에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군 미디어콘텐츠과에서 복무했고. 전역하기 전 제가 직접 기획한 '공군 픽토그램' 프로젝트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AF. 픽토그램 본상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현준_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을 건 '공군 픽토그램'이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손으로 공군의 픽토그램을 만든 만큼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작업이었지만, 800여 개나 되는 픽토그램을 기획한 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 후련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간부님과 동료,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 덕분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후임들도 저의 수상으로 용기를 얻어 좋은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전문특기병으로 근무하며 배우거나 느낀 점이 있을까요?

현준_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먼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만 생활하던 대학생이 6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단체의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영상 등의 디자인 작업을 하고, 국군인쇄창에 다니며 실제 인쇄과정에 참여하기도 했고, 다양한 굿즈와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작업하는 과정들이 학교에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디자인을 하는 전문특기병으로서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의 디자인이나 콘텐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상합니다. 이후 실제 제작에 돌입하여 작업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며 다시 수정하고 발전시킵니다. 사회의 웬만한 회사만큼이나 큰 규모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로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특기병이 아니어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전문특기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더욱 넓고 심도 깊게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F. 픽토그램 제작에 영감을 준 작품이 있을까요?

현준_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픽토그래퍼인 함영훈님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픽토그램'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고유성과 직관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픽토그램'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공간의 미, 입체감 등을 픽토그램에 반영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종목도 서로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직관성 있는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AF. 픽토그램 제작에 총 몇 시간이 소요됐나요?

현준_ 처음 '공군 픽토그램'에 대해 구상한 시기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구상만 하다가, 6월 이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4월까지 쭉 작업을 해왔으니 거의 10개월간 만들어온 셈이네요. 그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0시간 정도가 되는데, 사실 사물에 대한 픽토그램 하나를 제작하는 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적습니다. 초창기 구상 당시엔 공군과 관련된 대상 200개를 픽토그램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놓치고 있는 대상도 있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통째로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차 런칭을 할 때쯤 440개로 늘었고, 최종 런칭을 할 때 세어보니 800개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할 부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다시금 자료를 수집하고, 원본 파일과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만들고, 전달할 콘텐츠(홈페이지,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시간조차도 부족할 만큼 할 일이 많았죠. 작업을 할 때는 살짝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 '내가 정말 큰 산을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디자인을 만들기만 하다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픽토그램 1,000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AF. 'iF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작업은?

현준_ 모든 픽토그램에 대한민국 공군만의 정체성을 담으면서,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투기나 의복 같은 경우,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별되어야 했고, 서로 크기가 다른 사물들의 키 셰이프(Key Shape)와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와 클립을 같은 크기의 디자인에 담아야 했다는 것이죠. 전투기처럼 크기가 큰 물체는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생략되는 요소가 많은 반면에, 크기가 작은 도구들은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상반되는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또,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선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사진 1장만 가지고서 픽토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아쉽게도 공군에 입대했지만, 전투기나 항공기는 물론이고 다른 전투부대에서 다루는 무기체계를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직접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사물에 대한 첫인상을 포착하기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대상의 형태와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1 iF 디자인 어워드 로고

AF. 제작 단계에서 막힐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해소했나요?

현준_ 쉬거나 취미활동을 하며 머리를 식힐 수도 있었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오히려 막힐수록 문제를 빨리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전투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옆면을 표현하면 전투기의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없었고 윗면만 표현하면 전투기의 모든 요소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D와 3D의 입체감을 동시에 살린 '평창 동계올림픽 픽토그램'을 보며, 꼭 하나의 시점에서만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투기의 옆면과 윗면의 시점을 합친 형태의 전투기를 제작하였고, 수직·수평 날개 등 전투기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여 쉽게 구별 가능한 픽토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업 당시에는 완성된 모습이 빨리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작업에 따라 막힐 때 해소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작품들을 보다가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AF. 이제 갓 전역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요?

현준_ 2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군 픽토그램'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저의 디자인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제 목표는 디자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넘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만의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UX(사용자 경험)를 기반으로 한 그래픽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지금은 앞서 하고 있던 업무인 '코로나 체크업' 서비스의 디자이너·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3학년으로 학교에 복학하게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군인이 아닌, 디자이너 김현준의 다양한 작업들을 기대해주세요! AF

글·사진 | 공군인권나래센터

Rights ROKAF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인권나래센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한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이맘때 1주일을 '법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도 그 중 하나의 행사로서 병영 내 인권의식 함양과 자주적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매해 공모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이 수십개씩 출품되고 있고, 이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각급 부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수작을 선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작품이 다 훌륭했거든요. 자 그럼! 올해 선발된 작품들에 대해 제작자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가정에서든 단체에서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우수작 –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병장 김건우_ 저희 대대 병사들은 생활관 인원이 변동되는 이른바 '이사'를 매월 진행합니다. 생활관 이사 때마다 생활관원들과 논의하여 생활 수칙을 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가 많은 대대 특성상 다 같이 모여 토론하기가 어려워 토론 시간이 길어졌고, 수칙을 정하기 전까지 서로의 습관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행하는 기본 수칙을 만들어 두자는 생각에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처럼 편안한 느낌과 내 집처럼 생각하는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친근한 집 모습으로 구역을 나누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작성했습니다. 생활수칙을 정할 때, 주어진 연등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열띤 토론의 흐름이 끊어지면 모두 아쉬움을 뒤로하고 잠에 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연등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른 채 너무 좋은 의견이 주고 받으며 열띤 토론을 하던 중 당직사관님이 들어오셔서 감점을 주시려다가 생활관 헌법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곤 웃으시면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우수작 –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보통신대대〉

병장 박미르_ 서로를 존중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생활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하는 중에 '생활관 헌법 만들기'라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되어 재미있는 작품을 표현하고자 출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을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병사들에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제일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평소 게임을 하는 도중 스킬 설명을 유심히 읽었던 경험을 떠올려 게임 화면 중 스킬 설명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 그림판과 GIMP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하면서, 전자 규정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하나 재미있게 이름을 짓고, 문장을 만들면서 모든 조원이 재미있게 참여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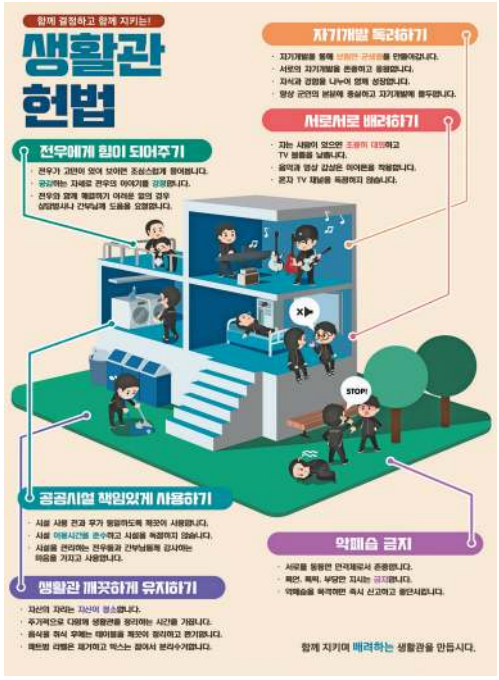
모든 부분에서 잘 지키고 있지만, 아무래도 생활관뿐만 아니라 전 대대원이 서로서로 존중하며 매너를 잘 지킨다는 부분이 자랑이란 점에서 '괴롭힘 멈춰' 스킬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작 –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일병 우민우_ 저희 생활관은 다른 생활관보다 생활하기 좋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생활관이라고 생각하여 제3회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원들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관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선별하고, 이것들을 생활관 헌법 항목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귀여운 공군 장병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누가 저희 작품을 보더라도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남는 점은 살기 좋은 생활관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데 있어 다양한 항목들이 선정되었는데 투표를 통하여 최종적 6가지 항목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준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에 참가하였지만, 대회를 통해 마련된 저희만의 규칙을 통해 상호 간에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작 –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병장 진재현_ 자대에 갓 온 일병 시절부터 현재 전역이라는 도착지점이 보이는 병장 시절을 근기수의 동기들과 한 생활관에서 오랫동안 큰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활관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노하우를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전 장병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공군을 상징하는 하늘과 전투기를 메인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이미지화하여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같이 영화 시청을 위해 모였다가 생활관 헌법을 어떻게 작성할지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끝나 버려서 영화를 준비해온 생활관원이 "이럴 거면 영화는 왜 틀었지.."라면서 이야기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트린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수작 –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352부대〉

상병 이두용_ 저희 부대는 산 정상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부대에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대대원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친해지기 쉽습니다. 다만, 대대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성취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를 알게 되었고 선후임이 함께 협동하여 제작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둔 점은 저희가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천하기가 쉬워야 저희가 만든 헌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생활관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다른 생활관원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야호는 이제 그만! 고성방가 X' 항목을 만든 후에는 누군가가 목소리가 커지면 생활관원들이 농담 섞인 말투로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니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모두 편한 생활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선임이라도 제작 중 힘든 부분이 있다면 후임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고 아무리 후임이더라도 선임과 협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뿌리에서 자란 하나의 나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에서 최우수, 우수작으로 선발된 5개의 작품과 직접 제작한 장병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관 내 규칙을 통하여 스스로 인권 친화적인 생활관을 조성해 나가는 모습과 병사들 상호 간에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생각,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군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생활관 헌법 만들기 대회를 통하여 우리 병사들이 부대 내 친인권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인권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앞으로도 부대 내 법치주의 실현과 장병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AF

글 | JTBC 김민관 기자

26개월간 총검술만 하다 나왔더니

글쓴이

JTBC 김민관 기자

2015년 1월 기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부, JTBC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정말 힘드시죠?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제대할 날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바깥 친구들은 인턴이니 투자니 저마다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삽질만 하며 허송세월하는 건 아닌지 막막한 기분도 듭니다.

위로가 될 진 모르겠지만 라떼 이야기를 잠시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 4월, 공군 병 663기로 입대했습니다. 복무기간은 무려 26개월이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 지내고, 또다시 봄을 지나 여름이 돼서야 제대를 했습니다. 군 생활은 모두 진주 훈련소에서 끝마쳤습니다. 총검술과 각개전투를 가르치는 전술학 조교가 제 보직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쁜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빨간 모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고 해서 제 군 생활이 덜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총검술이 서툴렀던 막내 시절에는 총 한 자루가 어찌나 무겁던지 두 팔이 늘 후들거렸습니다. 각개전투가 끝나면 씻고 또 씻어도 어딘가에서 모래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끔씩 내무반 식구들과 저녁에 치킨을 시켜먹곤 했습니다. 군 생활의 큰 낙이었죠. 대신 일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을 모두 끈 채 먹어야만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다리인지 날개인지 먹어봐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무반 화장실에 붙어 있던 멋진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길 바란다. - J.F.케네디'. 펑퍼짐한 체련복을 입고 대걸레를 양손에 든 채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꼭 제가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군대 다녀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암울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다가 갑자기 무슨 자아분열이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군 생활로 따지면 이제 겨우 '일병' 정도된 셈입니다. 적응은 됐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은 때입니다. '사회는 전쟁터'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전우'들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쌓아온 유대감은 정말 특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힘들 때면 함께 모여 소주 한 잔 기울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면 바쁜 시간을 쪼개 대구든 대전이든 광주든 함께 내려가 축하를 해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시끄럽게 코를 고는 동료들이 어쩌면 그 어떤 스펙보다 값진 존재일지 모릅니다.

'체력이 국력이다.' 군대에서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내 체력을 굳이 나라를 위해 써야 하냐고 되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반강제적으로 길러진 체력이 국력까지는 모르겠으나 제 스스로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등병 때는 양손을 써도 버거웠던 총기가 제대할 무렵에는 한 손으로도 거뜬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른 팔 힘 덕분인지 방송용 마이크 정도는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뙤약볕 아래 하루 종일 제초기를 돌리며 길러진 정신력은 무덥고 습한 취재현장에서 정신줄을 똑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웬만한 일은 '군대보단 낫다.' 정신으로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대 안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척 고되고 때로는 무척 허무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몸과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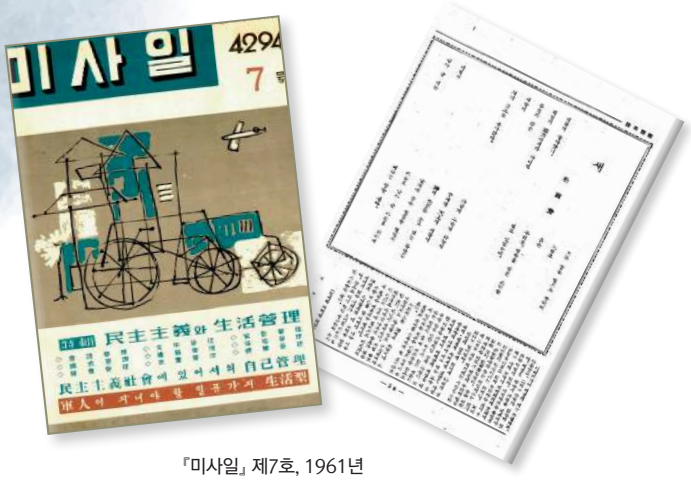
입대를 앞둔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군대 다시 가시겠느냐?" 따위의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 돌아오곤 합니다. 고민할 여지도 없이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 "군대 간 걸 후회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마찬가지로 아무 망설임 없이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눈물 나게 힘들긴 했지만 군대가 아니었다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과 추억들을 가득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란 말 앞에 '신성한'이란 단어를 붙이곤 합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오늘도 숭고한 의무를 다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은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꼭 몸 건강하게 군 생활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AF

공군교육사령부 비성탑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글 | 나민애 문학평론가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6화 박남수(朴南秀) 시인 편



『미사일』 제7호, 1961년

새

새들이 돌아왔다.
햇볕의 시력에서가 아니면
즐겁지 않은
새들이
처마 끝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날아 갈 때는

모두 뿜는 볕으로 뿌려져
노랗고
붉은
부리로, 볕방울 같은 소리들
뱉고 있었는데,

가맣게 그슬린 하늘에
뿌려진 천상의 새들이
신의 실수를 웃고 있는 동안은
날개에 묻은 별들을 털면서
하늘로 날아 갈 아침을 위하여
지금은 밤을 잔다.

박남수 시인은 1961년부터 공군지와 인연을 맺고 『미사일』에 두 편의 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그가 발표한 시는 「새」(『미사일』 제7호, 1961년), 「채송아」(『미사일』 제17호, 1962년)이고 수록한 산문은 없다. 『미사일』(1961-1963)은 공군 기관지 3세대 격에 해당하는 잡지로 60년대 초반에 발간되었는데 이 시기가 박남수의 전성기와 겹친다. 박남수는 1957년 아세아자유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때 그 유명한 「새」 연작이 탄생했고 대표 시집인 『갈매기의 소묘』(1958)와 『신의 쓰레기』(1964) 등이 발간되었다. 『미사일』에 수록된 두 편의 시는 박남수의 시집이나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던 작품으로 새로 발굴된 작품들이다. 나아가 『미사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박남수의 흔적은 그의 최전성기, 대표작 창작의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남수 시인

'새의 시인'으로 알려진 박남수(朴南秀, 1918-1994)는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유년기 시인의 집안은 상당히 유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년이 되었을 때 피난민 시절을 회상하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두 북에 가면 고래등 같은 집두 있구요, 쩡쩡 울리는 한 푸내기가 살구 있디요."(「비가-속 갈매기 소묘」) 실제로 그는 20대에 일본 유학을 했고 1941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졸업한 후 고향 평양으로 돌아와 은행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다 1951년 1.4 후퇴 때 국군을 따라 월남하여 남한에 정착했다.

남한에서는 1954년 잡지 『문화예술』을 발간하고 1959년 『사상계』 상임편집 위원을 지내는 등 문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지는 못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시인 박남수는 한국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결국 1975년,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975년 4월 16일자 중앙일보에는 「시인 박남수 씨(57) 미국으로 이민, "그곳서도 시작 계속"」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민 후에도 한국 문단에 시를 발표하고 시집을 내는 등 창작 활동을 이어가다가 1994년 미국 자택에서 작고하였다. 『초롱불』(삼문사, 1940)부터 『갈매기 소묘』(춘조사, 1958), 『신의 쓰레기』(모음사, 1964), 『새의 암장』(문원사, 1970), 『사슴의 관』(문학세계사, 1981), 『서쪽, 그 실은 동쪽』(인문당, 1992), 『그리고 그 이후』(문학수첩, 1993), 『소로』(시와시학사, 1994)까지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총 8권의 시집을 냈다. 박남수 사후 이 훌륭한 시인의 작품들을 그냥 흩어지게 놔둘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박남수 전집 1, 2권』(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박남수의 삶과 문학에 대한 요약문이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박남수의 두 번째 시집 『갈매기 소묘』

한양대학교에서 나온『박남수 전집』

"월남민이었던 박남수가 남쪽에서 보낸 24년의 세월이나 미국으로 가서 보낸 19년의 세월은 '갈매기'나 '정처를 잃은 새', 혹은 '소외의 독방'에 갇힌 핍박의 삶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그런 참담함을 함부로 글로 쓰지 않았고 끝까지 냉철하고 절제된 언어와 이미지의 시로 피력해 왔다. 영어 상용사회에서 모국어로 4권의 신작 시집을 낼 정도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에서, 우리는 또한 한국 시인의 한 꿋꿋한 풍모를 본다."

『박남수 전집 1권』 서문 중에서

이 표현처럼 그는 외로운 시인이었고, 뿌리 뽑힌 실향민이었으며, 두 번이나 터전을 옮겨야 했던 방랑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은 품격과 우아함을 잃지 않고 있어 후대의 찬탄을 자아낸다. 박남수는 문학 면에서 상당히 조숙해서 16세부터 창작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희곡을 썼다고 한다. 그러다가 1940년,『문장』에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다. 상업 학교를 나왔고 직장은 은행이었지만 박남수의 원래 꿈은 문학 쪽이었다. 같은 평양 출신인 시인 한흑구(1909-1979)를 만나 미국의 이미지즘과 외국 문인들을 소개받았고 문단의 친구로는 김종한, 함윤수, 양명문, 김용호, 이용악 등이 있었다. 특히 김종한과 자주 교류했는데『문장』지에 시를 보내게 된 것도 김종한이 한번 해보라고 권해서였다고 한다. 정지용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여 3회 추천을 완료하게 된다.『문장』지를 보면 정지용이 박남수의 작품을 추천하면서 한 '추천사'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재미있다.

정지용은 "듣자하니 당신은 체구가 당당하기 씨름꾼과 같으시다 하는데, 시는 어찌 그리 섬섬약질(纖纖弱質)에 속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면서 박남수의 시작법이 "나비를 잡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주 미묘한 풍경과 정서를 굉장히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는 말이겠다. 그리고는 마지막 추천을 완료하면서는 박남수를 크게 칭찬했다. 박남수의 작풍이 고우면서도 강렬하다면서 "시선(詩選)도 이렇게 기쁠 수 있을 양이면 이 밤에 내가 대백(大白)을 기울여 취(醉)할까 합니다."라고 기뻐했다. 절제의 시인 정지용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상당히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라 하겠다.

박남수는 이렇게 정지용의 손을 잡고 문단에 나왔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자신이 신인 시인들을 뽑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지훈, 이한직 등과 함께 박남수는 1950년『문학예술』이라는 잡지에서 신인추천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시단에 많은 신인들을 등단시켰다. 문단의 좋은 기둥이요, 문학인의 좋은 사례요, 인품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음은 많은 이들의 회상을 통해 알 수 있다.

박남수 시인이 등단했던 잡지『문장』

박남수를 3회 추천하여 시인으로 뽑은 문학적 스승 정지용

"박남수라는 시인이 있었다. 잡지 『문학예술』을 내던 분이다. 많은 후배들을 길러 내시고, 좋은 시를 쓰시면서 1960년대 문단에 든든하게 서 계시던 시인이시다. 아마 70년대경이었던 것 같다. 박 선생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시도 못 쓰고 문우들도 못 만나는 힘겨운 세월을 보낸다는 말이 풍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분은 조국에서 잊혀져 갔다. 우리는 지나간 문인들을 너무 잘 잊는 버릇이 있다."

- 강인숙(문학평론가, 영인문학관 관장)

이경희 시인은 미국에 있는 박남수 시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인용문은 그 편지글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강인숙 평론가가 말한 바와 같이 1950년대와 60년대의 문단에서 박남수는 많은 일을 했다. 1957년에는 유치환, 조지훈, 박목월 등과 함께 한국시인협회를 창립했고 『문학예술』, 『사상계』 등의 잡지에 관여했다. 그렇지만 실향민으로서 남한에 정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학교 등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결국 1975년에는 미국 이민을 결행했으니 말이다.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뉴저지로 옮겨가는 박남수의 인생에 대해 많은 이들은 '디아스포라', 뿌리 뽑힌 실향민, 경계인의 삶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박남수는 시를 계속 썼다. 문학에 대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시에 대한 열정과 홀로 지속해 온 여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박남수가 편집위원을 역임했던 잡지 『문학예술』

박남수의 가장 유명한 시라면 아무래도 '새 연작'을 꼽게 된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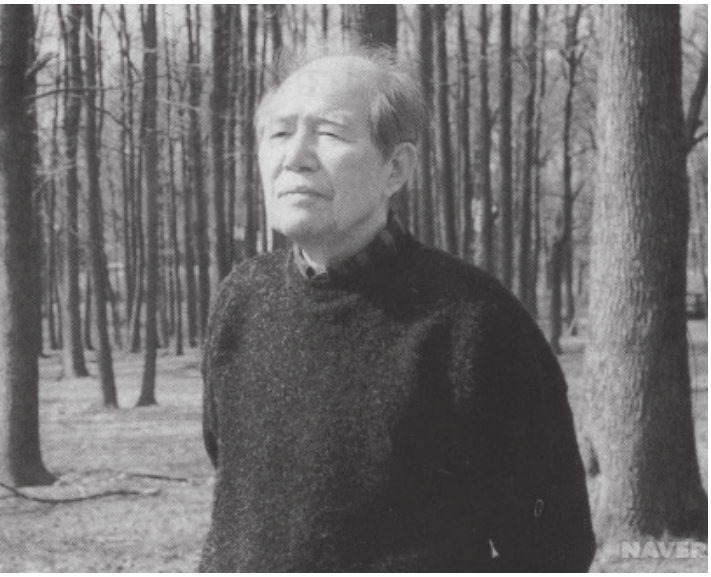
「새 · 1」 중에서

잡지 『신태양』(1959년 3월호)에 실렸던 위 작품을 비롯해서 박남수에게는 여러 편의 '새' 시가 있다. 그래서 박남수라면 '새의 시인'이라거나 '순수의 시인'이라는 타이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남수가 '새 연작'을 쓰던 시기가 1950년대 후반부터인데 『미사일』 제7호에 실린 시 「새」 역시 새 연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채송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꽃나무가
땡볕 쬐는 정오에 꽃을 피웠다.
아침 이슬에 눈을 여는 꽃이다
저녁 무렵에 밤을 향해 피는 꽃이야 많지만
이 조그만 채송아가
명주필의 매끄러운 살결에
물먹은 빨강, 물먹은 노랑, 아직 마르지 않은 빛깔로
조그만 형상을 달고 있다.

『미사일』 제17호, 1962년


박남수 시인

『미사일』 제17호에 실린 시 「채송아」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발굴작이다. 박남수의 시 중에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채송화'가 등장한 적이 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 방공호 위에 / 어쩌다 된 /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로 시작하는 이 작품이 「채송아」보다 먼저 창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집인 『소로』에도 「씨」라는 작품에 채송화가 등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꽃나무" 채송화는 박남수 시인이 사랑한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꽃씨를 받았던 할머니의 마음은 순수와 생명을 옹호하려는 마음이다. 채송화는 작고 잘 눈에 띄지도 않지만 꿋꿋하게 자기 존재를 지켜나간다.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인의 눈에 채송화는 경이로움과 대견함으로 가득 차 있다.

새는 포수에 비하면 약하디 약하고, 낮은 데 피는 채송화는 세상 무엇보다도 연약해 보인다. 그렇지만 포수의 총은 새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고, 우리의 편견은 채송화를 폄하할 수 없다. 생각해 보면 박남수와 그의 시 자체가 새이고 또 채송화였다. 그는 민족과 역사의 사건 앞에서 부평초처럼 떠돌았다. 밥과 생계와 생활이 그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남수가 지켜낸 문학과 그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날아다니는 새요 영원히 피어 있는 채송화다. 그러니 시인 박남수라고 하면,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했던 한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AF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참가 대상

공군 장병 및 군무원,
대학(원)생 (사관생도 포함),
스타트업 기업, 연구기관

공모 주제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

* 세부 공모분야와 출품작은 홈페이지 참고

행사 일정

접수기간
2021년 4월 12일 (월) ~
2021년 7월 10일 (토) 정오까지

멘토링 2021년 8월 2주 중 1일

본선대회 2021년 8월 4주 중 2일

* 코로나 19 관련 행사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접수 방법

공군 해커톤 홈페이지 참조

일반인 www.공군해커톤.kr

장 병 공본 인트라넷 해커톤 홈페이지

수상 내역

10개 팀 시상 총 **상금 1,390만원**

구분	개수(팀)	상금	시상
대상	1	50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최우수상	1	250만원	공군 참모총장상
우수상	4	120만원	공동주관 기관장상
장려상	4	40만원	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상

주최 주관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IBK기업은행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KoEF 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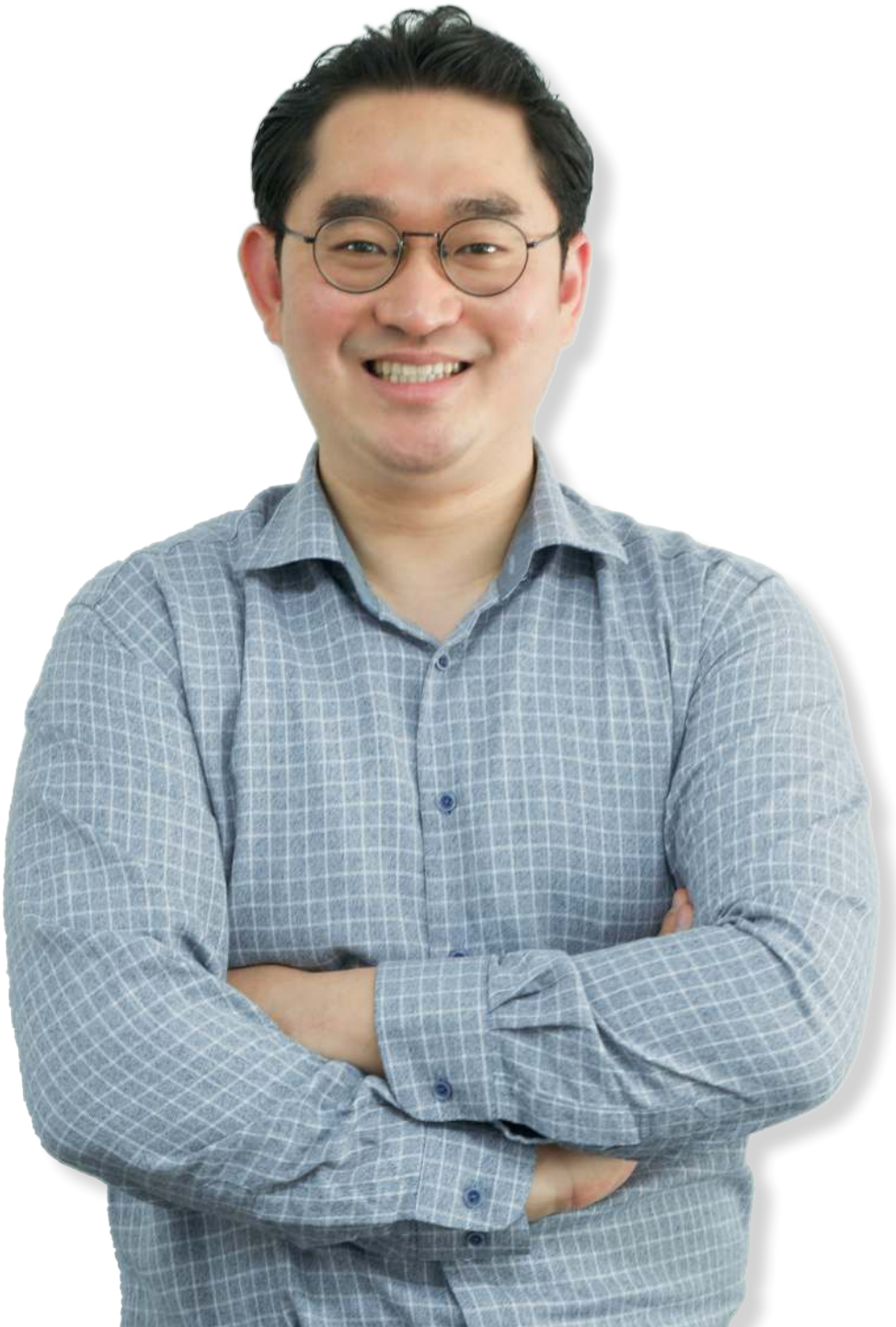
후원 창업진흥원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SWKOREA · 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전자신문

글·사진 | 월간공군 편집실

제26화 이화여자대학교 조무형 교수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은 매일 정신전력교안을 만들어 예하부대에 배포한다. A4 1장 분량에 항상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소재는 다양하다. 안보관, 군인정신은 물론이고, 효, 전우애, 자기계발, 역사, 최신기술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 항상 생각할 거리를 준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는 정신전력교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놀랍게도 1명의 장교가 그 일을 한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새로우면서 유익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군 일일정신전력교안을 만들었던 예비역 중위 조무형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글쓰기가 좋아서 온 공군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예비역 중위 조무형입니다. 공군 학사장교 124기로 입대해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정훈과(현. 공보정훈실 정신전력과)에서 일일정신교육교안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일정신교육교안 담당은 전 군에서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고 항상 자부해 왔습니다. 타군과는 달리, 공군은 하루 단위 정신전력교육을 진행해왔는데요. 국가관, 안보관, 공군사(史), 자기계발, 효도, 전우애 등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을 매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미국 듀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작년 9월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올해 3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취득한 정치학 박사 학위

어릴 때부터 글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대학생 시절에는 이제 추억이 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몇년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읽고 쓰는 일들이 익숙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제 적성과 관심을 활용할 수 있는 군복무의 기회를 고민하던 중에 일일정신교육 교안을 작성하는 공군본부 정훈과의 교재개발담당 특별전형의 기회가 주어졌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여 정훈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저는 매일 한 장 분량으로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군인정신 및 안보관을 주제로, 3-4회 정도는 인성교육, 자기계발, 감동적인 일화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투철한 군인정신과 안보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다른 자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이야기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를 담은 교안을 통해 장병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중위가 되고 나서, 교육 방법의 변화를 주고자 교안을 녹음해 전파하는 방식을 선보였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부대에서 일과 시작 시간에 맞춰 2~3분 분량의 녹음본을 틀었는데요. 장병들이 딱딱한 교육처럼 느끼지 않고, 라디오를 청취하듯 매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대략 900편 가량의 교안을 작성했는데, 그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교안이 있습니다. 공군의 역사와 관련된 기념비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는 교안을 일종의 연재물 형식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현재 공군의 초석을 닦은 항공선각자분들의 업적에 대해 스스로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군에서 좋은 기억

하루에 한 편의 글이 나가야 하고, 그 글을 모든 공군인이 본다는 생각에 많은 부담감도 따랐습니다. 보통 매주 금요일에 2주 후에 나갈 교안의 주제나 테마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글을 써 내려갔고, 목요일 오전에 전체 퇴고를 진행한 후 오후에 전파하는 순기로 진행했는데요. 틈틈이 신선한 소재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여러 분야의 도서를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근무했던 사무실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쓴 교안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올 때마다 정말 뿌듯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에는 한 군무원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의 자녀가 큰 병으로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교안을 뽑아서 읽어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을 무렵,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계시던 한 중령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쓴 교안을 매일 읽고 프린트해 쌓아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공군인의 생각하는 아침 특·별·기·획 2013. 4. 24(수)

항공독립운동사: 대한민국 공군의 기원을 찾아서

[11] 1940년대 임시정부의 공군설계위원회

중일전쟁 당시 중국 항공대는 일제 패망을 목표로 치열한 공중전을 펼쳤으나,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에 있어 사실상 항공대가 궤멸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게다가 1940년대 초 소련의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중국 항공대는 고작 연습기 정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일본의 기습적인 미국 진주만 공격으로 상황의 일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타이거즈 부대'를 편성하여 일본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국 항공대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1942년에 이른바 '히말라야 노선'이 열리면서 중국에 대한 군수지원이 시작되었고, 이듬해에는 중미 연합 항공대까지 등장하며 제공권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일전쟁 이전부터 일본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있는 직할부대 편성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침내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침공에 따른 미국의 참전으로 국제정세가 일본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임시정부는 직접 대일(對日)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비행대를 편성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복군의 참모차장이었던 최용덕(崔用德)의 주도로 만들어진 '공군설계위원회'에서 그 기본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3년 8월 19일 발표된 공군설계위원회 조례는 당시 상황에서 미국과 합작하여 한국 공군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공군설계위원회는 '일제의 무력 세력을 박멸하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세계의 영구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공군 인원의 훈련 관대를 비롯한 각종 제반사항을 미국과 공동으로 협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최단 기간 내에 공군 작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건군·건국 중 공군 기초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공군 인원이 참여하는 한국 공군 훈련소 공동 설립, 미국 공군과의 연합작전 및 한국광복군의 작전 행동 협조를 위한 한국 항공대 편성, 미국의 협조 하에 공군 건설의 제반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군설계위원회는 우리나라 공군 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최용덕이 공군설계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진한 것은 우리 공군 건설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한국인 비행사들을 연합군 비행대대에 파견하여 항일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군설계위원회의 노력은 1944년 4월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 비행대' 창설을 준비하면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이는 다음 편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와의 최후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분연히 일어났던 한국광복군, 그리고 더 강한 공군력을 통해 광복군의 작전 수행에 기여하고자 했던 공군설계위원회의 노력을 기억하는 공군인이 됩시다.

당시 작성했던 교안

공군에 입대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가진 능력을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 주고 제가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셨던 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3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매일 교안을 만들면서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교안의 내용에 대해 장교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감상과 의견, 건설적인 비판과 제언 등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유능하고 진중한 공군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한 곳에서만 군 생활을 해서 다른 부대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소위 때 한 달 정도 강릉기지에 파견근무를 갔었는데, 그때가 비행단을 접해 본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공보 업무와 문화 홍보 업무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본다거나 항공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수업 중인 조무형 교수

이제 강단에 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꿈꾸고 바랐던 일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 친구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양질의 정치학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과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학문적인 엄밀성과 현실적인 함의를 함께 갖춘 좋은 연구를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평생 지속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이 제가 수업을 맡은 첫 학기인데요.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그 중 한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만나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강의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탐구하는 영역에 대해 혼자서 공부해 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공부했던 지식을 응축해서 그 핵심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된 것이죠. 의욕도 넘치고 욕심도 많다 보니 강의 준비를 하는 데 보통 한 주에 40시간 정도 쏟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공군에서 제가 맡았던 일과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글을 쓴다는 점, 그리고 그 글을 끊임없이 고치고 또 고치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교안을 쓰던 시절에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한 주치의 교안 초안을 전부 출력해 놓고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긋고 적어가며 퇴고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향으로 지금도 제 연구논문을 쓰고 나면 출력해서 교정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에세이나 레포트에 대해서도 코멘트와 피드백을 달아서 돌려주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교안을 쓰면서 많은 글을 읽고, 쓰고, 고치고 하면서 생긴 습관들이 지금 교수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군에서 보냈던 3년은 제게는 무척 각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공군 장병 여러분들께도 각자의 군생활이 나름의 의미와 뜻깊은 경험으로 남으시기를 바라며, 맡은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 응원과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제 군복무 경험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공군 안에서 장병들의 투철한 군인정신, 바람직한 인성, 풍부한 교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구독자 분들께서 알고 성원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무척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AF

글·사진 | 대위 안정현(전발단 운영계획과)

우 리 부 대 는

항공우주전투발전단

미래 정예공군 육성을 선도하는
Think-Tank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황색독수리 : 밝게 빛나는 예지의 공군을 상징**
- **책 : 공군의 Think-Tank, 전문연구기관임을 상징**
- **별과 적색 비행기 : 하늘과 우주를 모두 아우르는 항공우주군을 상징**
- **펜과 미사일 : 공군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항공우주 전투발전 분야 연구 및 소요기능을 상징**
- **월계수 : 공군의 전투발전을 통한 영구적 평화 건설을 상징**

부 대 연 혁

- 1978. 1. 5. 필승태세 연구분석부 창설(4개 실 체계)
- 1990. 12. 20. 전투발전단 창설(2개 처, 6개 실 체계)
- 2002. 5. 27. 에어쇼기획실 잠정인가
- 2010. 12. 27. 전투발전단 해체 및 연구분석평가단 창설(4개 처, 2개 실, 1개 과 체계)
- 2014. 1. 1. 우주발전처 신설
- 2019. 2. 1. 부대명칭 변경(연구분석평가단→항공우주전투발전단), 소요발전처 신설

항공우주전투발전단 현판식

공군의 Smart Power! Think Tank!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은 1978년 1월 공군본부 필승태세 연구분석부를 모태로 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략연구와 전투발전 기능 중심의 연구분석평가단으로 운영되었으며, 2019년 2월에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는 공군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전투발전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 구현을 목표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군비전 2050

공군 미래 설계의 중심!

전략발전처는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전략·작전개념 연구를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부서다. 공군의 전략·작전개념 발전 연구를 수행하는 전략개념발전과와 부대구조 기획, 인사교육 제도, 군수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를 수행하는 전투발전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전략발전처는 『공군비전 2050』을 발간했다. 『공군비전 2050』은 공군이 향후 국가안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전장에서 작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정예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서이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우리 군의 우주 선도 조직

우주분야 선도를 위한 전문조직 편성 필요에 따라 전군 최초 우주전문조직인 우주발전처(현. 우주처)가 '14년 1월에 신설됐다. 우주처는 공군의 우주정책·전략 발전을 총괄하고, 우주전문인력 양성을 주관하며, 우주전력체계 소요 제기를 통해 관련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여 美 우주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정보를 획득하여 국내 우주기관(항우연, 천문연 등)에 제공하는 등 국가 우주상황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군 교리발전 세미나

공군 교리 연구/발전의 핵심

교리처는 항공우주력 운용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공군교리 발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의 최신 교리와 개념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전훈분석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전장영역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계하여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위상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공군교리뿐 아니라 합동교리에 반영하여 합동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교리발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교리에 대한 인식 증대와 공군인의 군사지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AEROSPACE CONFERENCE 2021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력 기획

소요발전처는 2020년에 신설된 부서로, 중·장기 신규 및 전환 전력에 대한 소요제안서를 작성하고, 전력화 단계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중·장기 무기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항공기와 항공무장전력 소요를 연구·검토하는 항공무기체계소요과와 방공유도탄·기지방호·지휘통제 전력 등에 대한 소요를 연구·검토하는 방호지휘통제소요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공군 전력구조 발전에 대한 구상과 효율적 전력운용방안 등을 검토함은 물론이고, 미래 작전 수행에 부합한 신규전력 소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투실험 및 M&S 발전 세미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

분석평가처는 공군의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전력화평가 및 야전운용시험을 하고 있다. 전력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분석, 적정 비용 추정 및 비용절감 대안 도출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투발전 분야별 소요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최신기술 습득을 위해 M&S(Modeling&Simulation) 용역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공군 합성전장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KF-16과 FA-50 간 모의비행훈련장비 실연동 및 전술데이터링크 구축개념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기종의 모의비행훈련장비 간 체계 연동을 성공시켰다.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세미나

공군의 시험평가, 감항/AIMS 인증 전문부서

시험인증처는 공군의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AIMS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다. 시험평가과는 52전대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시험평가 계획/결과에 대한 검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항인증과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현재 연구개발사업 9건을 비롯한 총 32건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AIMS 인증팀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육·해군 등 모든 전력을 대상으로, 전시 연합작전 및 우군생존성 보장에 필수적인 피아식별이 실제 전장환경에서 정상구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 ADEX 2019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을

에어쇼기획실은 「서울 ADEX 2021」 행사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다. ADEX(Aerospace & Defence Exhibition)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로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 블랙이글스 에어쇼, F-35A 등 항공기 전시, 드론 경연대회, 국민조종사 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각급 부대 지식재산권 순회교육

제안제도 운영,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제안실은 공군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국방·군사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0여 건을 채택하여 군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군의 지식재산권을 식별하여 86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수백여 건의 디자인·상표·저작권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대별 순회교육을 통해 공군의 제안업무 활성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F

공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하늘을 향한 도전!

조국을 위한 헌신!

2022학년도(제74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원서접수기간	2021년 6월 25일(금)~7월 5일(월)
1 차 시 험	2021년 7월 31일(토)
접 수 처	http://www.afa.ac.kr
입 시 문 의	043)290-5504, 290-6067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한범희 상사(19전비 공보정훈실)

19전비, 비행단 창설 30주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5월 15일(토) 비행단 창설 30주년을 맞았다. 19전비는 1991년 5월 15일 창설 이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19전비 주요 지휘관·참모들이 부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영공방위와 성공적인 항공작전을 의미하는 'V'자 대형을 그린 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상사 전용태(공군본부 비서실)**

「Aerospace Conference 2021」 개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5월 11일(화) 공군회관에서 「Aerospace Conference 2021」 개회식을 주관했다. 공군은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사)공군발전협회와 함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과 상생도약'이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5월 13일(목) 제16전투비행단과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8789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 초급간부 운영실태 등을 비롯해 부대 주요현안들을 점검하였다.

故 김신 6대 공군참모총장 5주기 추모식

김신장군기념사업회 김두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월 19일(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신 6대 공군참모총장 5주기 추모식'에서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김신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기념사업회 임원, 유족인 딸 김미 여사, 사위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참석했다.

구성·편집 | **월간공군 편집실** 사진 | **각 부대 제공**

제1전투비행단

'21-1차 전투태세훈련

1전비는 4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나흘간 비행단의 임무 수행 및 작전 지속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21-1차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했다. 2일차에는 표준탄약 조립훈련, 병력동원 증·창설 훈련, 야간 기지방호 등의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제17전투비행단

활주로 소형폭파구 피해복구 훈련

17전비는 5월 11일(화), 공병대대 피해복구훈련장에서 활주로 소형폭파구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새로운 복구공법을 부대 피해복구요원들이 완벽하게 숙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활주로 소형폭파구 복구공법을 보고받고, 시범 현장을 참관하여 훈련 요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8전투비행단

누유 확산 방지훈련

18전비는 5월 4일(화) 부대 내에서 누유 확산방지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부대 내 유류 탱크에 비축된 유류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다.

제20전투비행단

부대 인근 농가 대민지원

20전비는 5월 7일(금) 부대 인근에 일손이 부족한 사과 농가를 찾아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부대 장병 40명이 자발적으로 대민지원에 나서, 과일이 크게 자라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사과꽃 솎기' 작업을 실시했다.

제53특수비행전대

제99회 어린이날 기념 온라인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5월 5일(수) 어린이날을 기념해 독립기념관 상공에서 축하 비행을 실시했다. 독립기념관이 계획한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온라인 에어쇼로 변경해 이뤄졌다.

공군 군악의장대대

찾아가는 군악 공연

공군 군악의장대대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수)과 13일(목)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에서 '찾아가는 군악 공연'을 열어 군 장병과 주민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했다. 코로나19 상황과 도서 지역의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힘을 복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AF

글 | 최인아 대표

한 달, 한 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오월이 올해는 좀 터프하네요. 황사로 하늘이 누렇고 기온이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더니 주말엔 많은 비를 뿌려 발을 묶네요. 그래도 비 그치고 나면 파란 하늘이 나오겠지요? 이 달에 소개할 책은 '전략가, 잡초'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계절, 꽃을 찬양해도 모자라는데 잡초라뇨. 제목에 이끌려 읽기 시작했다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에 주목해주세요. '잡초의 전략'이 아니라 '전략가,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처음부터 잡초의 생장을 우리들 인생살이에 투영해서 쓴 겁니다. 일본 저자의 책이라 원제목을 찾아보니 '잡초는 왜 거기에 살고 있나' 쯤이 되는데 우리 말 제목이 훨씬 근사한 것 같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에도 부합하구요.

사실 우리가 잡초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책은 한번 잡으면 계속 읽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아 왔던 것과는 다른 잡초 이야기라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와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잡초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훼방꾼, 혹은 뽑아도 뽑아도 생겨나는 억센 생명력이 생각납니다. 근성도 느껴지구요, 그런데 저자는 잡초를 일러 연약하다고 합니다. 아니 잡초가 연약하다구요? 네, 그렇답니다. 잡초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식물이 자라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어디에 사는가 하면 식물들이 사는 곳을 피해 인간 가까이에 산다는 거에요. 그러고 보니 길가나 보도 블록들 사이에 삐죽 고개를 내민 풀들이 생각나네요. 잡초였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잡초는 싸우지 않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잡초의 생존 전략은 쉬고 잠자는 겁니다. 잡초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이 난다고 해서 싹을 틔우지 않고, 쉬면서 생존하기에 적절한 발아 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른다고 해요. 싹을 틔우는 시기와 장소가 생존에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야말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잡초에게 배웁니다!

저자, 이나가키 히데히로는 식물학자이자 농학박사인데 특이하게도 잡초생태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대중을 위한 과

학 책도 여럿 썼는데 과학이나 식물에 대해서만 쓰지 않아요. 제목 '전략가, 잡초'에서 보듯 고군분투하는 인간들과의 교집합을 찾아서 서술하죠.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경쟁자 없이 독주하는 것은 양미역취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주변이 온통 양미역취투성이가 되니 양미역취가 뿜어내는 독물질이 자신의 발아나 성장까지 좀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책의 한 구절 같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잡초는 밟히면 일어서지 않는다.. 〈중략〉 잡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꽃을 피워 씨앗을 남기는 일이다. 그렇다면 밟히고 또 밟혀도 계속 일어서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 낭비다. 그런 쓸데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밟히면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략〉 ..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잡초의 혼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이 이어지겠지요?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책방에서 이 책으로 북 토크를 했는데 어떤 신사 분이 그러시더군요. 잡초는 꽃을 피워 씨앗을 남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자신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구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을 추동하고 애쓰게 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잡초를 가리켜 '아직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라 말하는 등 이 책이 잡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다르고 신선합니다. 그동안 알아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잡초 이야기를 들려주죠. 관점을 달리 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인사이트!) 겉에선 보이지 않던 가치가 새로 보이니까요. 또, 저자의 글쓰기 방식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대부분의 글쓰기는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을 대상은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이해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글쓰기는 읽을 상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책이 바로 그래요! 잡초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잡초에 대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보니 우리 모두 하루 하루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으니 바로 이 점을 교집합 삼아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책이 잡초의 특성 서술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 삶의 이야기로 읽히는 까닭입니다. 제목 '전략가, 잡초'도 이런 의도를 담아 정했을 테구요. 우리가 몰랐던 잡초 이야기 뿐 아니라 잡초 이야기를 풀어가는 저자의 글쓰기 방식까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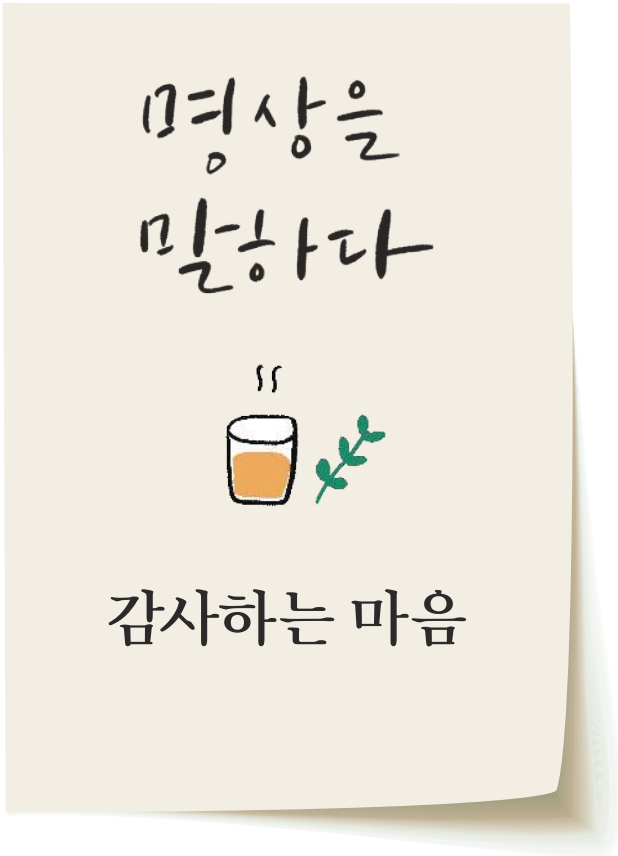
오월엔 휴일이 여러 날 들어있어 한결 여유 있게 느껴지는 달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틈 날 때마다 책과 가까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전하며 마칩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책을 골라보겠습니다. AF

『전략가, 잡초』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더숲 출판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글 | 최순용 명상 강사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 그 자체이다.
(Gratitude is heaven itself.)"**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불만에 가득차서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나요? 혹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태껏 살아 오며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감사함이 있었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마음에는 감사함 대신 욕심이나 화, 불만 등이 있었을 겁니다.

좋지 않은 마음 상태를 무엇이든 떠올려 보십시오. 근심, 걱정, 후회, 욕심, 분노, 짜증, 질투, 나태, 번민, 슬픔 …… 거기에 감사함이 있나요? 거꾸로 감사함이 있다면 좋지 않은 마음은 그곳에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 그 자체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분명히 그곳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곳일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건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자 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어지게 하려 합니다.

일상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때였나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잠자리와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정상적으로 숨쉬고 보고 듣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등. 감사할 일은 차고도 넘

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 왔을 뿐이지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욕심을 내나요? 욕심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겁니다. 반대로 감사함은 항상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감사함은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고,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의 첫걸음은 지금 나에게서 감사할 일을 찾아내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감사의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① 눈과 입을 자연스럽게 지그시 다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고 기다립니다.

②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무엇이든 감사할 만한 것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조상과 부모, 쉴 수 있는 집과 언제든 원하면 먹을 수 있는 여건, 건강한 몸과 정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온갖 것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해 오며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봅니다. 감사할 대상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함은 거창함이나 사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④ 감사의 느낌이 깊어짐과 함께 호흡도 깊어지고 미세해져 감을 알아차려 봅니다. 감사와 미세한 호흡이 함께 이어지도록 합니다. 감사함이 몸과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해봅니다.

⑤ 이렇게 10분 이상 계속한 후 심호흡을 3번 하면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수단으로 사용하는 google의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10의 100제곱을 수학전문용어로 googol이라고 합니다. 1 뒤에 0이 100개 붙은 숫자입니다. 당초에 googol로 상호등록을 하려던 직원의 실수로 google로 상호등록을 해 버린 겁니다. googol 즉, 1 뒤에 0이 100개 오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오나요? 우주 전체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 많은 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이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2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2명의 부모가, 그 어머니에게도 2명의 부모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1대 위에는 2명의 부모가, 2대 위에는 4명의 부모가, 3대 위에는 8명의 부모가 있게 되고, n대 위에는 2의 n제곱만큼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400대를 올라가면 2의 400제곱만큼의 부모가 있게 됩니다.

2의 400제곱이 10의 100제곱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개념적'으로는 우주 전체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선조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조상들은 모두 생식이 가능한 2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 생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평균수명이 20살도 채 되지 않던 시절에 맹수에 쫓기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전쟁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모두 20세 이상을 살아 지금의 나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는 우주의 모래알보다 많았던 선조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토록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눈물겹게 감사한 일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글 | **이혜인 문화부 기자**

영화로운 나날

지키는 것의 숭고함

살면서 한 번은 누구나 전쟁영화에 빠져들거나 '밀덕'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몇 년 전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본 후 나는 한동안 전쟁영화에 빠져들었다. 1,800m 떨어진 곳에서 정확하게 적의 머리를 맞히는 실존 스나이퍼의 이야기를 손에 땀을 쥐고 봤다. 이후 〈에너미 앳 더 게이트〉,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등을 거쳐 〈풀 메탈 자켓〉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명하다는 전쟁영화들을 훑었다. 볼만한 전쟁 영화를 애타게 찾아 헤매던 내가 다다른 종착지는 엉뚱하게도 〈그랜 토리노〉였다. 영화 소개에 따르면 〈그랜 토리노〉는 왕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월트(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갱단의 협박을 받는 옆집 소년을 지키는 이야기다. 〈황야의 무법자〉의 총잡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펼치는 총격신과 액션신이라니…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감독이기도 하다. 기대에 가득 차 〈그랜 토리노〉를 시청했다.

〈그랜 토리노〉를 이미 본 사람이라면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총격 영화의 통쾌함을 맛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총격신은 나오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서부영화의 멋진 영웅 대신 꼬장꼬장한 꼰대 할아버지가 있었고, 미국 이민자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이 그려졌다. 예상과는 다른 스토리였으나 나는 영화를 다 본 후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져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랜 토리노〉는 전쟁 한복판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전쟁의 잔혹함을 알려주고, 누군가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영화다.

월트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병이다. 유일한 의지처였던 아내는 얼마 전 하늘나라로 떠났다. 무표정하거나 찡그린 표정 뿐인 월트와 친한 사람은 단골 이발소의 이탈리안 이발사 뿐인 것 같다. 자식들은 월트의 하나 남은 집을 탐내며 월트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권유한다. 손자 손녀는 월트가 아끼는 1972년형 그랜 토리

노 자동차나 노린다. 옆집에는 베트남 이민자 출신인 몽족이 사는데, 월트는 유색인종들이 자꾸만 미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영 못마땅하다.

할아버지의 신경질 가득한 일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옆집에 사는 몽족 소년 타오(비 방)가 월트의 차고에 침입하면서부터다. 타오는 같은 몽족 갱단의 협박에 못 이겨 월트의 그랜 토리노를 훔치려다가 실패한다. 갱단은 타오의 누나 '수'와 타오가 착실하게 사는 것이 못마땅해 시시때때로 괴롭힌다. '아시아인은 덮어놓고 싫어'였던 월트는 점점 타오와 수를 지켜주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갱단과의 싸움에 휘말린다. 꼰대 할아버지 월트는 그토록 혐오하던 이민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새 자기를 내던진다.

수시로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내뱉던 월트의 마음에는 왜 변화가 생겼을까. 월트라는 인물을 보려면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아마도 그는 20대에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것이다. 월트는 "1952년에 중공군 기관총 기지를 치러 갔는데 제법 갈겨대는지라 그날 살아 돌아온 건 나뿐이었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의 차고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받은 훈장이 소중하게 보관돼있다. 라이터에는 1951년 당시 제1 기병사단의 엠블럼이 새겨져있다.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경험은 그의 마음 한쪽에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월트는 자신이 위협당한다고 느낄 때 한국전쟁에서 겪은 일들을 으스대듯 내뱉는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전쟁의 기억은 월트에게 평생 상처로 남았다. 그가 받은 훈장 하나는 자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어보였던 17살짜리 소년병을 쏴서 받은 것이다. 월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먼 타국에 가서 총을 쥐었다. 지키기 위해 싸웠고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잃은 것도 많았다. 수많은 동료를 잃고,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은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

월트는 한국전쟁에서는 깨닫지 못한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의 의미를 수십 년후 일상에서야 깨닫는다. 전쟁의 본질은 싸우거나 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혐오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몽족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인간 본연의 이타심이 올라온다.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서 그는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항복하겠다고 하던 17살짜리 소년병을 우발적으로 쐈던 월트는, 옆집 소년을 위해 60년 만에 다시 총을 쥔다.

전장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월트처럼 매일을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랜 토리노〉를 보면 무언가를 지키는 것의 숭고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AF

영화『**그랜 토리노**』
메인 포스터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유성민(제38전투비행전대 전대본부 감찰안전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마음은 미래를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믿으라, 기쁨의 날 오리니!"
이게 뭔지 알아요? 오래전부터 아버지 당신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장식하고 있는 푸시킨의 시구절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아버지는 인생의 달관을 터득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생각은 가을바람이 겨울바람으로 변모하는 11월, 훈련소의 연병장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전보다 선명히 느껴졌네요. 스무 살의 나이로 부닥친 군대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더군요. '아, 아버지는 달관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군대라는 첫 번째 관문을 거쳤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퍽 다정한 사람은 아니셨죠. 인생에 달관했다기에는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고, 나들이 가서도 기분이 나쁘면 반찬 그릇을 다섯 살배기 내게 집어 던지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당신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 자식이 무엇을 하든 믿고 응원해주는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푸시킨의 시를 읽고 번뜩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닐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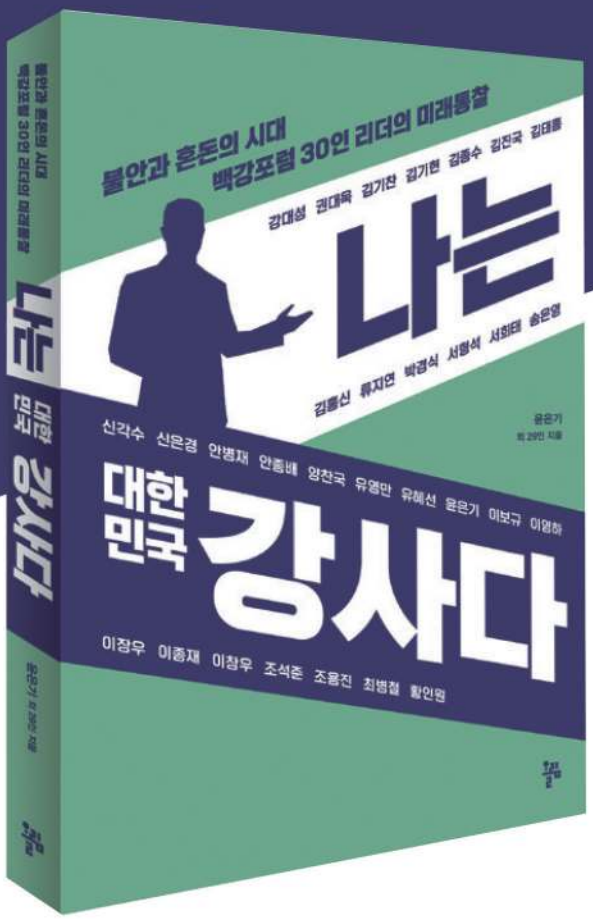
그 답은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군대는 내 입맛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곳이죠. 규율이 있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목표가 우선하는 곳이니까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도 조직의 결속을 위해서는 꾹 참아야 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당시 그런 상황이셨죠?
기껏 주말에 나들이 나갔더니 접촉사고가 나고… 꼭 내 차에만 새똥이 우수수 떨어지고… 애들은 자꾸 칭얼거리고…
나라도 다 때려치우고 집 가서 TV나 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조직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참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 당신도 군대를 다녀오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느꼈고 상태 메시지에 그런 문구가 들어갔던 것이잖아요. 내 안식과 행복을 조직의 결속과 평화에 양보하고 묵묵히 달관하는 것. 그것이 군인 정신이자 세상 모든 아버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내며 멋진 군인이, 성숙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휴가 나가면 같이 나들이 가요. 아빠 상태 메시지는 멋지지만 프로필 사진 진짜 너무 못 찍었어요. 제가 멋있게 찍어 줄게요. AF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불안과 혼돈의 시대, 일과 삶에 관한 국가대표급 리더들의 명강의

사회공헌과 지식공유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리더 30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공직 등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검증된 명강사들이다.
이 책은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문학, 예술, 심리, 건강,
경영, 리더십, 소통, 공감, 외교 등 전통적인 주제부터
이커머스, 기후변화, FTA, 4차산업혁명, 미래 예측과
대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삶의 거의 모든 주제들을 다룬다.
소재는 다양하지만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가.

불안과 혼돈의 시대, 백강포럼 30인 리더의 미래통찰

나는 대한민국 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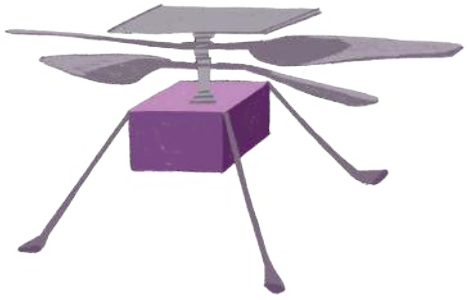
지은이

강대성 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
권대욱 휴넷 회장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기현 칭찬박사협회 회장
김종수 생명온도연구소 소장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 소장
김태홍 감정노동연구소 대표
김홍신 소설가
류지연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서형석 기후환경연구원 대표
서희태 지휘자
송은영 한국이미지메이킹센터 원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신은경 차의과대학교 교수
안병재 한국멘토교육협회 회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양찬국 골프전문가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유혜선 인문학살롱 대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이영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이장우 브랜드 컨설턴트
이종재 PSR 대표
이창우 World FTA Forum 회장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
조용진 한국형질문화연구원 원장
최병철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원장
황인원 문학경영연구원 대표

생각하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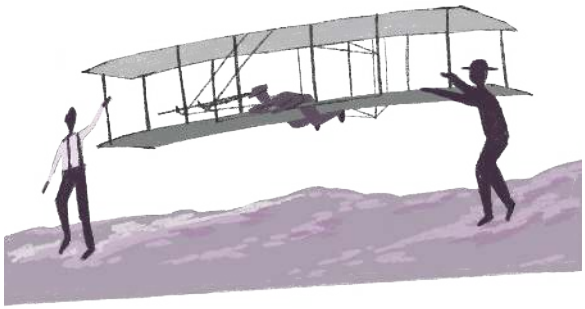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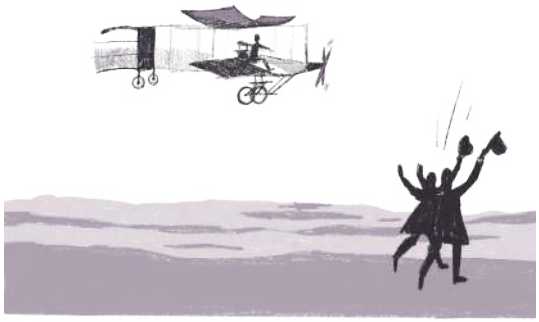
스페이스 프론티어(Space Frontier)



지난 4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만든 비행체가 화성에서의 동력 비행에 성공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소형 무인헬기 '인저뉴어티(Ingenuity)'가 화성의 상공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인저뉴어티는 지형적 제약을 받는 지상로버 등의 관측 수단과 달리, 보다 빠른 속도로 탐사가 가능하고 관측에 제약을 받지 않는 획기적인 수단이라 평가됩니다. 이는 화성을 시작으로 태양계 천체들의 비밀이 풀릴 날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저뉴어티에 시험 비행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1903년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기 '플라이어 1호기'의 조각을 부착하였다고 합니다.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인류가 하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인저뉴어티를 시작으로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1903년 이전에 하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 이후에는 하늘을 넘어 미지의 우주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개척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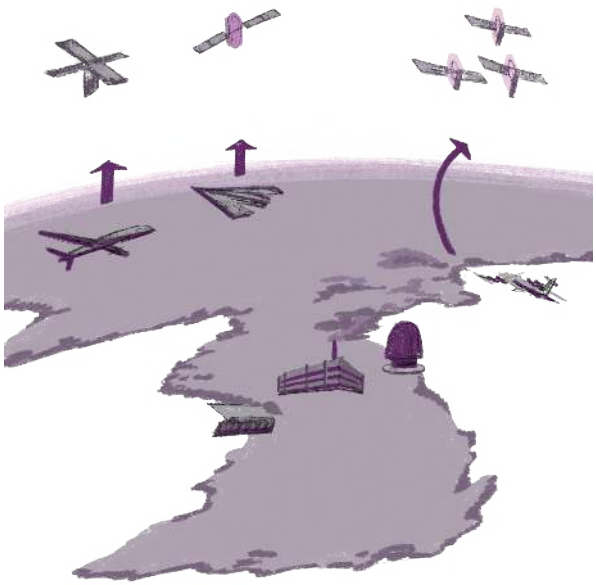




개척 정신을 통해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에만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개척 정신의 뒷면에 수많은 실패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라이트형제는 비행기를 개발하기까지 수십년을 투자했으며, 시범비행 중 추락으로 몸에 큰 부상을 입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도전을 한다고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였고, 결국 최초의 동력비행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하늘에 머문 '제한된 꿈'을 꾸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 역시 우주의 신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우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개척 정신으로 무장한 공군이 있습니다. 공군은 우주전략 발전계획인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공군비전 2050'을 통해 우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넘어 우주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미래 공군의 역할이자 목표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척 정신을 통해 우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는 공군인이 됩시다! AF



5 1 6

ISSN 2383-5524

06 >

9 772383 552001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